

영암군, 조선업 일자리 창출 적극 나선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및 재도약 기틀 마련 예정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 등 협력 강화”

영암군은 지난 5일 전라남도 조선업도약센터(목포 KT센터)에서 전남도 및 목포시, 지역 조선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조선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중 영암군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한 유현호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 김병중 목포시 기획정책국장, 한인권 목포고용노동지청장과 현대삼호, 대한조선, 대불산 단경영자협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선업 일자리 사업의 확대·발굴에 적극 협

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영암군은 조선업 도약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조선업 내일채용공제,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숙련되지자 재취업지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인력난을 겪는 조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조선업도약센터를 중심으로 유관 지원기관 및 기업체들과 힘을 합쳐 조선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유



지역 연계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재도약의 기틀 마련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2차 환경정책자문회의

목포시가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의 환경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일 시청에서 열린 2차 환경정책자문회의는 지난해 11월 말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좀 더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6명이었던 자문위원을 13명(시의원 2, 환경분야 교수 2, 환경시민단체 2, 환경관련 기관 3, 회계사 2, 변호사 1, 주변 마을주민 1)으로 확대해 이뤄졌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사업방식(재정, 민간투자)의 장·단점 및 적정성, 소각처리방식(스토커, 열분해)운영 등에 대한 효율성 및 경제성, 대기오염 물질 배출 위해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정책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시설의 안전성, 시민 건강권 등 목포시와 시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랜선 주민설명회,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두차례의 자원회수(소각)시설 시민공청회, 현장평가단 현장견학 등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신안군 주요 5대 관광지

관광권이 휴대폰 속으로

전국 최초 ‘모바일통합관광권’ 시행

신안군은 신안군 주요 관광지 5개소를 묶어 한꺼번에 관광이 가능한 ‘신안군 모바일통합관광권’ 제도가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 모바일통합관광권’은 신안군의 대표 관광명소인 1004섬분재정원, 세계화석광물박물관, 100뮤지엄파크, 에로스서각박물관, 1004섬탑립홍매화정원을 성인기준 15,000원에 입장가능하다. 관광객이 선호하는 퍼플섬은 보라색 옷 입고 오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기에 제외하였다.

‘모바일통합관광권’을 이용하면 5개소의 관광지 개별 관람요금 40,000원을 25,000원 절감하여 1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과 군인은 개별 구입 시 17,000원의 가격을 6,000원으로, 어린이는 8,000원의 가격을 3,500원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쿠폰식 통합관광권이 분실의 우려가 있고 관광지별 확인 절차가 복잡하였으나, 모바일통합관광권은 구입이 간편하고 타인에게 선물하기가 가능하며, 휴대 및 확인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관광객이 관광에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깨끗이 유지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황토갯벌랜드로 나들이 오세요”

숙박시설과 해양 치유와 힐링, 해상안전 관광지로 변모

디가, 오른쪽에는 만개한 벚꽃들이 어우러져 찾아오는 관광객을 반겨주고 있다.

또한 갯벌랜드 내 피튜니아, 꽃잔디 등이 만개하고 분재전시관 내 화목류 분재와 한창 새로운 잎을 내보이고 있는 수국, 잔디의 새싹도 코로나로 지친 관광객들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봄기운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갯벌랜드는 화창한 여행을 즐기는 여행 수요자를 대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해상사고에 대비한 해상안전체험관,

갯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갯벌생태과 학관 등 다양한 시설을 준비해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현장 교육장이 될 것이다.

또한, 무안군이 4월부터 무안황토갯벌랜드,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밀리터리테마파크 등 유료 관광지 3개소에서 입장료 환급 서비스를 하고 있어 관광객의 부담이 줄고 무안 관광지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국내 1호 습지보호지역과 갯벌도립공원 지정 및 랍사르습지 1732호로 등록된 서남

권 대표 관광명소인 무안황토갯벌랜드 (이하 갯벌랜드) 입구 원형에는 보랏빛의 꽃잔

영광군, 마을공동체 상반기 마을리더 집합교육 개최

60여 명 참석...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적 마을발전방향 모색

영광군에서는 마을공동체 30개 마을 리더 및 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영광군 마을공동체 상반기 마을리더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마을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 마을공동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마을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군수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마을 자치 기반 구축의 필요성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 파트너십 구축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협력적 관계 형성을 주제로 진행했다.

아울러 영광군에서는 2017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30개소(씨앗23, 새싹1 열매1, 돌봄5)의 마을공동체가 운영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 영광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운영중에 있다.

강종만 군수는 “마을공동체 리더로서 회원들간의 연대감과 소통이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이 영암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마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광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공직자 기록물 관리 교육 실시

함평군이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기록물 관리 교육이 지난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가기록원 소속 이정옥 강사를 초빙해 진

행된 교육은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 기록물의 이해, 유형별 관리 방법 등 기록관리 전반에 대해 다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기록물 관리 업무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